

화학산업 전력 소비량 최고수준

산자부, 2월 산업용 전력 소비 133억kWh ... 플라스틱 10.8% 증가

2004년 2월 화학산업 전력소비량이 전년동월대비 9.5% 증가한 26억100만kWh로 집계됐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4년 2월 국내 전력 소비량은 271억kWh로 1월의 268억kWh에 이어 2개월 연속 최고치를 나타냈다.

2월에 또다시 최고치가 경신된 이유는 2월초에 있었던 강추위로 난방수요가 증가했고 1월에는 설연휴, 2월에는 윤일이 있어 2월 조업일수가 1월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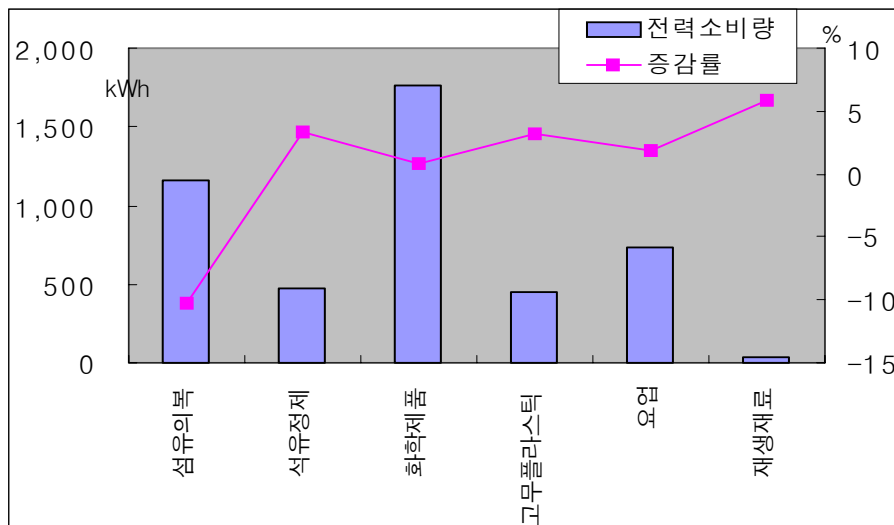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04년 2월 산업용 전력 소비량도 133억kWh로 많아 전년동월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음향·통신부문은 11억8800만kWh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자동차제조부문이 19.2% 상승해 뒤를 이었다.

화학제품과 석유정제 부문 전력 소비량은 16억9900만kWh와 4억4600만kWh를 기록해 각각 9.6%, 7.8% 증가했으며 특히, 고무·플라스틱제품 전력 소비량은 4억5600만kWh로 10.8%의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섬유부문은 3.7% 하락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 소비실적(2004.2)



제조업 전체의 전력 소비량은 2003년 1월 109억7400만kWh보다 9.4% 늘어난 120억1000만kWh로 집계돼 전체 전력 소비량의 44%를 차지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4/07>